



“대한민국 축제 여기 다 있소”

‘K-Festival 2019’ 24일 개막
서울 광화문광장서 사흘간 열려
65개 축제 참가 110개 부스 마련
‘5대 글로벌 육성축제’ 모두 참여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축제를 위한 축제’가 펼쳐진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해볼 수 있는 ‘K-Festival 2019, 제7회 한국축제&여행박람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동인엔컴 공동 주최로 열린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 전문 박람회다. 지역 홍보가 아닌 ‘축제 홍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인 지역 관광 마케팅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이벤트를 마련해 축제 프로모션의 장을 연다.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7회를 맞았다.

여의도에서 열린 지난해 박람회에는 81개 축제와 42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6만여 관람객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지난해 참가 업체 중 70%가 올해도 참가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을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이번 박람회는 ‘다함께 즐거운 축제, With&Fun’을 주제로 국내 65개 축제 등 110개 부스가 마련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5대 글로벌 육성축제’인 보령머드축제, 안동탈춤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김제지평선축제, 화천산천어축제가 모두 참여한다. 산청한방약초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정남진 장흥물축제, 강진청자축제, 제주들불축

제, 부여서동연꽃축제, 논산강경젓갈축제, 서천한산모시문화제 등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축제도 참여한다.

박람회장은 6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축제홍보관에서는 전국 축제 및 이벤트를 살펴보고 체험해볼 수 있다. 이벤트산업관에는 이벤트 기획, 시스템 장비, 기타 행사용품 제작 및 대사업체들의 홍보 공간이 마련되며, 여행상품정보관에는 축제 관련 상품과 국내외 축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공연과 현장 이벤트, 강연회가 열리는 특별무대와 각 지자체 이벤트 체험존과 에어바운스 등 휴게공간이 들어서 이 이벤트체험광장이 마련된다. 관람객들은 전국 축제 정보를 접하는 동시에 다양한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참가 업체들은 상호 교류를 통해 축제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벤트체험광장에서는 바람개비 머리핀과 부채 만들기, 뽕망치 게임, 통아저씨 게임, 찰흙 놀이, 대형 쟁가, 지압판 즐기기, 림보게임 등이 준비돼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특별무대에서는 판따라 실버스타 상상밴드 ‘아트시니어 그룹’, 군산시간여행 ‘김시백’, 싱어송라이터 그리니의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진행자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K-페스티벌은 국내 축제 산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전국의 지역 축제는 2008년 926개로 급증했다가 2014년 555개로 줄어드는 등 통폐합을 통한 조정 시기를 겪었다. 하지만 그 경제적 가치가 13조 원에 가까울 정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축제 산업의 질적 성장과 창조적 콘텐츠 개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민관협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K-페스티벌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축제 전문 페스티벌로, 축제산업 전문화 및 체계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24일 오전 10시 30분 특별무대에서는 국회 및 정부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린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kf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K-Festival 2019 참가 지자체와 축제

| 구분 | 지자체 | 축제 | |
|--------|-----------|---|------------------|
| 수도권 | 경기 광명시 | 광명동굴대한민국와인페스티벌 | |
| | 전남 강진군 | 강진청자축제 | |
| | 전남 영암군 | 영암월출산국화축제 | |
| | 전남 영광군 |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 |
| | 전남 신안군 | 신안성·갯벌올림픽(섬·바다축제) | |
| | 전남 목포시 | 목포항구축제 | |
| | 전남 순천시 | 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 | |
| | 전남 장흥군 | 정남진장흥물축제 | |
| | 전남 해남군 | 땅끝송호해변축제 | |
| | 호남권 | 전라남도 | 명량대첩축제 |
| | | 전북 김제시 | 김제지평선축제 |
| | | 전북 고창군 | 고창모양성제 |
| 전북 무주군 | | 무주반딧불축제 | |
| 전북 순창군 | | 순창장류축제 | |
| 전북 완주군 | | 완주와이드푸드축제 | |
| 전북 임실군 | | 임실N치즈축제 | |
| 전북 장수군 | | 장수한우왕사과광축제 | |
| 전북 정읍시 | | 정읍구절초축제 | |
| 전라북도 | | 세계스카우트캠버리 | |
| 대구 | | 대구지맥페스티벌 | |
| 대구 남구 | | 대구할로윈축제 | |
| 대구 달성군 | 사문진비어페스티벌 | | |
| 부안시 | 부안시 | BOF2019, 부산불꽃축제, 부산록페스티벌,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바다축제 | |
| | 부산시 기장군 | 차성문화제 | |
| | 영남권 | 울산시 | 울산마두희축제, 울산고래축제 |
| | | 경남 김해시 | 김해분청도자기축제 |
| | | 경남 하동군 | 알프스하동 섬진강문화 재첩축제 |
| | | 경남 거제시 | 거제섬꽃축제 |
| | | 경남 남해군 | 독일마을백주축제 |
| | | 경남 산청군 | 산청한방약초축제 |
| | | 경남 양산시 | 양산산량문화축전 |
| | | 경남 통영시 | 통영한산대첩축제 |
| | | 경남 함양군 | 함양산삼축제 |
| | | 경북 안동시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
| 충청권 | | 충남 보령시 | 보령머드축제 |
| | | 충남 부여시 | 부여서동연꽃축제 |
| | 충남 서천군 | 서천한산모시축제, 장항6080뉴트로여행 | |
| | 충남 예산군 | 예산장터삼국축제 | |
| | 충남 당진시 | 당진비그내연호문화축제 | |
| | 충남 청양군 | 청양고추기자축제 | |
| | 충남 홍성군 | 홍성역사인물축제 | |
| | 충남 금산군 | 금산인삼축제 | |
| | 충북 청주시 | 청주공예비엔날레 | |
| | 충북 제천시 |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 |
| | 대전시 | 대전도토즐페스티벌 | |
| | 강원권 | 강원 인제군 | 인제옹달샘축제 |
| 강원 태백시 | | 한강·낙동강발원지축제 | |
| 강원 정선군 | | 정선아리랑제 | |
| 제주권 | 제주 제주시 | 제주들불축제 | |
| | 한국관광공사 | 아트시니어 | |
| 기관 | 코리아트래블리지 | | |
| | 강원랜드 | | |

K-Festival 2019

K-Festival 기념 ‘한국 축제의 글로벌화 전략 세미나’ 개최

동아일보사와 채널A,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IFEA Aisa)는 국내 최대 규모의 ‘K-Festival 2019’ 개최를 기념해 국내 축제의 세계화 전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축제로서 글로벌화 발판을 마련한 보령머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김제지평선축제 실무 책임자가 성공적인 글로벌 전략에 대해 발표합니다.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9년 5월 25일 15시 • 장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설가온(세종문화회관 지하1층)
- 주제발표: 석창호 진주문화예술재단 기획실장, 이용열 보령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강기수 전북 김제시 글로벌축제담당 • 주최: 동아일보사, 채널A,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 • 문의: doyoce@donga.com

알립니다

대한민국 축제 국가대표, 문화관광축제

한국관광공사

지역 경제 활성화
효자역할 하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

1996년 처음 도입된 문화관광축제 제도는 전문가와 축제 방문객의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통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축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매년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는 치열하게 고민하며 축제 콘텐츠와 지역인프라를 개선해왔고,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관광자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1개의 축제를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4개 등급에 걸쳐 선정했다. 사계절 내내 전국에서 각 지역의 특산물, 문화예술, 전통 문화 등을 주제로 축제가 개최돼 방문객의 발걸음을 유도한다. 문체부는 축제의 발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국내외 홍보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문화관광축제 제도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우수한 졸업생도 배출했다. 일정 기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룬 함평나비축제, 양양송이축제 등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대표등급을

5년 연속 유지해 문화관광축제를 졸업한 글로벌 육성축제인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김제지평선축제, 화천산천어축제 등 5개 축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손꼽는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이원리조트에 오면 꽃길만 걷게 해줄게

강원랜드

리조트 내
야생화 카트투어
인근 지역 축제도
5~6월 줄이어



겨우내 눈으로 덮여 있던 하이원리조트(대표 문태곤) 스키장 슬로프가 봄이 오자 꽃길로 변했다.

해발 800m에서 1340m까지 조성된 하이원스키장은 높이에 따른 기온변화로 야생화 식생의 분포가 수직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환경 덕분에 스키장 슬로프에서는 5월부터 11월까지 수레국화, 루드베키아, 샤프스타데이지 등形形色색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를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감상할 수 있다.

가족, 친구들과 꽃길을 걸으며 봄을 만끽할 수도 있지만 숲해설사의 야생화 설명과 함께 카트를 타고 야생화 군락지를 돌아볼 수 있는 '하늘길 야생화 카트투어' 상품도 준비돼 있다. 이 상품은 그동안 숲해설사가 카트를 운전하며 약 50분 동안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셀프 운전도 가능해 고객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하이원리조트 인근 지역에서도 5월과 6월 봄꽃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줄을 잇고 있다. 문의 하이원 마운틴 고객센터 033-590-6827

정선 두위봉 철쭉제

두위봉 일대 수만 평의 철쭉군락이 장관을 이루며, 특히 정상 주변에서 피는 연분홍 철쭉이 매력적인 축제다. 철쭉제에는 등반대회, 노래자랑, 사생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 기간: 5월 25, 26일
- 장소: 강원 정선군 두위봉, 단곡계곡 일원
- 문의: 함백청년회의소 033-378-7633

태백 철쭉 전국등반대회

민족의 영산 태백산에서 주목과 함께 철쭉을 즐길 수 있는 등반대회이다. 4인 1조 크로스 컨트리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 코스를 완주한다. 이번 대회는 등산을 좋아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 기간: 6월 2일 오전 9시~오후 4시
- 장소: 태백산국립공원 당골광장 및 유일사 매표소
- 문의: 태백시산악연맹 033-553-8400

코리아트래블이치

K-Festival의 축제 외국인관광객에게 소개

외국인 관광객에
한국자유여행시
필요한 콘텐츠
온라인으로 제공

코리아트래블이치(www.KoreaTravelEasy.com)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개별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 여행 상품을 소개 판매하는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이다. 외국인이 한국 자유여행 시 필요한 데이투어, 액티비티, 입장권, 체험, 프라이빗 투어, 교통, 와이파이 등을 온라인에서 실시간 쉽게 예약, 결제할 수 있다.

코리아트래블이치(KoreaTravelEasy)는 '한국 여행 쉽다'라는 의미로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편하게 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 콘텐츠에 집중하는 서비스이다.

외국인 여행객들의 한국 여행은 아직까지 서울 및 대도시들에 국한돼 있고, 외국인 자유

여행객들의 투어 액티비티 구매 패턴도 남이섬 등 유명 관광지 투어 및 대규모 시설들의 입장권들에 집중돼 있는 편이다.

K-festival은 한국의 대표 축제들이 모여 있는 장으로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축제 관련 투어 상품이 가능한 지자체들은 축제 기간 동안 현장에서 상담도 가능하며 K-festival에 참가한 축제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자유여행객 대상 투어 상품에 대해 운영 상담 및 상품 입점도 가능하다.

축제 종료 후에도 K-Festival에 참가한 축제들의 지자체들과 외국인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투어 상품을 기획, 판매, 홍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코리아트래블이치는 서울시 외국인 관광 공식 홈페이지 One More Trip의 파트너로 2018년 서울시 관광 스타트업 공모전에 선정됐으며, 올해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벤처로 선정됐다.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콘텐츠로 만들고, 외국인 자유여행객이 편리하게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며 만족할 수 있도록 한국 관광에 필요한 플랫폼 서비스로 성장해가는 것이 코리아트래블이치의 목표이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굴
대한민국와인페스티벌

대한민국 와인, 동굴 와인셀러에서 만난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 페스티벌'은 한국 100대 관광지에 선정된 광명동굴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 와인 최대의 축제이다.

2015년 경기 광명시 광명동굴이 유료로 재개장되며 광명동굴 내 와인동굴이 새롭게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200여 m 남짓한 이 와인동굴은 오픈부터 한국의 와인들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의 다양한 한국 와인을 소개하며 판매하는 한국와인

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인 소믈리에까지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진행된 광명동굴의 한국와인 소개는 4년여 기간 동안 15만 병의 한국와인을 판매하면서 한국와인의 메카로 불리고 있다.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 페스티벌은 전국 40여 지역에서 만든 200여 종의 한국와인을 시음하고 마리아주 체험, 와인 족욕 체험, 와인 오크통 굴리기 대회, 와인 캘리그라피 체험, 와인 박스 만들기 체험, 와인 코르크 공장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광명시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았다.



강원 정선군
정선아리랑제

“정선같이 살기 좋은 곳 놀러 한번 오세요~♪”

우리나라 아리랑의 기원지인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인 정선아리랑. 올해 44회를 맞는 '정선아리랑제'는 강원 정선군의 대표 축제로 매년 10월 초 개최된다. 이맘때면 정선아리랑제와 봄계 물든 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정선으로 발걸음을 한다.

정선아리랑제는 민족의 정서를 가득 담은 전국 유일의 한민족 아리랑 집합의 장을 마련해 다른 소리 축제와 차별화된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정선아리랑뿐만 아니라 타 지역 아리

랑 초청공연 및 이주 교포들의 고난의 역사를 간직한 해외아리랑도 소개된다. 정선아리랑을 주제로 한 공연과 아리랑 경창 대회를 비롯해 아리랑을 주제로 한 각종 행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9개 읍면의 화합 한마당 '갈매이'이다. 9개 읍면이 가진 대표 특산물과 명물을 주제로 퍼레이드를 벌이다 축제장으로 들어오며 하나로 합쳐지는데 장관을 이룬다. 정선아리랑 중 '정선같이 살기 좋은 곳 놀러 한번 오세요'라는 가사처럼 정선아리랑제 기간 정선5일장에 맞춰 정선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서울 관악구
관악 AG FESTIVAL

'아트시니어그룹'과 함께하는 신나는 지역 생활

3개 동호회 연합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활동 선택

사회적 경제기업 ㈜아트시니어그룹(대표 최진성)은 '2019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제도전담'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사업'인 제1회 AG FESTIVAL(부제:관악 '옴므 생활문화 동호회 축제')을 개최한다.

관악구의 3개 생활문화 동호회와 연합해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에 관악구 신림역 주변 수변무대 야외 공연장에서 대중가요(트로트), 전통음악(시조), 마술방송(GMB) 등 다채로운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선보인다. 또 활동을 함께할 '생활문화 동호회 기획자'가 되어보는 배움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주식회사 아트시니어그룹은 사회적기업인

흥원에서 주최하는 '2017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육성기관-한기협)'과 '2019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제도전담 팀(육성기관-신나는조합)'에 선정된 단체이다.

아트시니어그룹의 메인 밴드인 '판따라실버스타 상상밴드'(www.artsenior.net)는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에서 생겨났으며, 2017년 상상밴드 운영실장이었던 최진성 대표의 기획으로 '고명화 되는 아티스트'의 문화예술 활동을 돕는 소셜미션을 가지고 최초 '2017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76세의 단장 '닥터K'의 지휘 아래 가장 어린 66세의 막내 '색소어필'부터 86세의 최고령자 '나팔도사'까지 6인조 콤보밴드의 활동은 전국을 무대로 노익장을 펴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미8군 트리플 에이스(AAA) 출신의 프로 연주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또한 전국노래자랑에서 35년 동안 연주하고 나훈아, 남진, 조용필, 하춘화 등 정통한 가수들과 함께 무대를 누비던 평균경력이 50년이 넘는 베테랑들이다. 관악구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옴므 생활문화동호회'(가요동호회(대표 유하정), 시조동호회(대표 우복만), 관악마술방송(대표 정연길))는 이들과 함께 신나는 축제의 한마당을 펼칠 계획이다.



강원 태백시
한강·낙동강발원지축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원(始原)한 축제

한여름에 겨울을 만나는 뱃속까지 시원한 축제가 강원도 태백에서 열린다.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개최되는 '제4회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그것이다. '쿨 시네마'(O2리조트 축구장에서 7월 20~25일 개최)를 시작으로 황지연못, 검룡소, 365세이프타운 등 도심 전체가 축제장으로 변신한다.

황지연못과 검룡소에서는 각종 발원수 체험과 힐링 공연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365세이프타운에서는 도심 속 워터파크도 마련된다. 물총싸움,

버블파티, 물폭탄 등 얼수(水)절수(水) 물놀이난장도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페어리드 경연대회(재활용품 활용)와 커버맨즈 대회를 개최해 많은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 참가자들에게는 시상도 할 계획이다.

아이스링크, 서머크리스마스존 등 겨울 분위기를 연출로 시원함을 선사하고, 물의 소중함과 발원지의 상징성을 담은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된다. 낙동강 물길의 소중함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황지연못 수중 정화 활동도 펼친다. 단순한 물 축제가 아닌 생명의 기운을 나누는 축제 열여름 자연 그대로의 별천지 태백으로 가보자.



강원 인제군
인제옹대황태축제

황태의 고장서 건강과 여유를 챙겨가요

'황태의 고장' 강원도 인제 용대삼거리 일원에서 6월 6일부터 9일까지 황태 축제가 펼쳐진다. 올해 21회를 맞는 '인제 용대 황태 축제'는 산신제를 비롯한 공식 행사와 공연, 경연, 요리체험, 문화체험, 황태 장터 등

8개 분야 31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막 첫날 국내 유명 가수들의 축하공연과 뮤지컬, 버스킹 등 공연 프로그램들이 예정돼 있으며 황태 라면요리체험, 황태가마솥 시식 등 구수한 맛의 황태를 맛보는 것은 물론,

직접 요리도 해볼 수 있는 체험행사도 준비했다. 문화체험 행사로 투호와 가족팔씨름, 낚시체험, 복주머니 던지기 등도 예정돼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용대리 덕장에 내걸린 명태는 겨우내 추위와 찬바람 속에서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는 등 자연의 조화에 순응하면서 황금 빛깔의 황태로 다시 태어난다. 황금빛 색깔과 식감, 구수한 맛이 어우러지면서 인제 용대 황태는 최상품으로 분류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연휴 기간 황태 축제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건강과 여유를 챙겨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 대전토토즐페스티벌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대전토토즐페스티벌'은 5월 4일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충북 제천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한방의 고장' 서 열리는 한방바이오 대제전

'자연치유도시' 충북 제천시에서 10월 2~7일 6일간 '2019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한방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 주제와 '한방바이오, 제천이 이끌고 세계가 누린다'를 슬로건으로 제천이 한방바이오·천연물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전시, 이벤트, 학술 등 국내외 관련 단체 및 기업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한방바이오표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공연 등을 준비해 방문객들이 몸과 마음을 제대로 힐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 보령시 보령머드축제

천연 머드에 풍덩...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매김

정열의 여름, 보령의 머드에 빠지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 '보령머드축제'가 어느덧 올해로 22회를 맞이한다.



보령머드축제는 세계 1위 여행가이드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 관광 톱3일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조사한 한국에서의 버킷리스트 중 축제로서는 유일하게 뽑힐 만큼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보령머드축제에서는 피부 청결과 보습에 탁월한 천연 머드 속에서 세계인들과 함께 빠지고 뽀글고 즐기는 환상적인 경험이 가능하다.

일상을 잊고 그저 즐기면 되는 이 단순한 매력 때문에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모여든다. 특히 올해는 축제 역대 최강 라인업과 최대 규모의 K팝 콘서트를 준비해 보령머드축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밤의 꿈을 선사할 예정이다.

충남 예산군 예산장터삼국축제

향기로운 국화-얼큰한 국밥, 1100년의 역사 만끽

충남 예산군은 전국적인 관광의 도시로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원과 환경,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고장이다.



이곳에서 열리는 '예산장터삼국축제'는 국화 감상과 더불어 국밥을 뜨끈하게 먹고, 집으러 돌아가는 길에 국수 한 대발을 사 가는 맛과 멋이 있는 '가을 나들이' 축제이다.

올해는 예산군의 예산지명 1100주년이 되는 해다. 또 예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주인공인 '독립의 횃불'을 밝힌 윤봉길 의사의 고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뜻깊은 해에 지난날 국내에서 가장 긴 예당호 출렁다리가 개통돼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예산군을 찾아들고 있다.

향기로운 국화, 얼큰한 국밥, 햇빛과 바람으로 만져 만든 예산장터 국수는 정겨운 인심이 가득하다.

우리 민족의 미덕으로 불리던 '훈훈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예산장터 삼국축제에서 한 자락 쉬어가는 여유를 가져보자.

충남 청양군 청양고추구기자축제

때깔 좋은 청양고추-구기자 만나 보세요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밝은 태양,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충남의 알프스 청양에서는 전국 제일의 고추와 구기자를 주제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청양백세건강공원 일원에서 '청양고추-구기자 축제'가 열린다.



올해 20회를 맞는 청양 고추·구기자축제는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과 문화예술,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고추 천 원 담아가기, 김치 만들기, 마술인형극, 보물찾기 놀이마당, 지천 물고기잡기 등 풍부하고 짜임새 있는 축제장 구성이 돋보인다. 특히 고추를 비롯한 많은 농·특산물이 이날을 기다린 듯 때깔 좋은 자태를 뽐내며 손님을 맞이한다. 합리적인 가격과 철저한 건 고추선별로 많은 소비자의 발걸음을 판매장으로 끌어들이며 매년 준비한 물량이 매진되는 호황을 이루고 있다.

청양군은 축제장을 찾은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립형 종합 문화축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힘쓰고 있다.

충남 서천군 서천한산모시축제

대한민국 유일의 섬유축제 '한산모시문화제'

2019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된 '한산모시문화제'가 6월 7~10일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관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풍성한 볼거리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산업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산모시문화제는 올해 30주년을 맞아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산모시문화제는 30년의 이야기를 담은 아카이브전,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 가수 양희은과 지역 오케스트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산모시 베를리오즈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서천군은 한산모시문화제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산모시짜기의 우수성을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 널리 알릴 한산모시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6월 초, 한산으로 발걸음하면 살짝 더운 바람에 한들거리는 모시잎의 반가운 인사와 함께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한 한산모시제를 즐길 수 있다. 1500년을 이어온 한산모시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충북 청주시 청주공예비엔날레

정북동 토성 등 청주 전역서 공예 풍유도원 펼쳐져

2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올해 11번째 행사를 준비 중이다.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는 '미래와 꿈의 공예-풍유도원이 펼쳐지다'를 주제로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41일간 버려진 옛 담배공장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공예비엔날레는 기존의 전시공간을 넘어 청주의 역사문화공간까지 공예의 영역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적 제415호 정북동 토성을 비롯해 율량동 고가(古家), 청주역사전시관, 안덕별

임대 빈집 등 청주 전역을 무대로 삼아 공예의 풍유도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지역 7개 전시공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아트 브리지를 통해 열린 비엔날레로 거듭나고 시민이 도슨트가 돼 비엔날레에서 활동하는 등 참여형 비엔날레 실현에 한발 다가설 것을 예고했다.

더불어 2017년 한 차례 중단됐다가 다시 부활한 국제공예공모전을 통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공예 작품과 작가를 발굴하고 공예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능성으로 식막한 현대사회에 감성을 선물할 예정이다.

충남 금산군 금산인삼축제

고려인삼의 종주지, 금산 인삼 맛 보세요

1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삼의 본고장 충남 금산에서 '금산인삼축제'가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충남 금산은 고려인삼의 종주지이자 전국 인삼의 70%가 유통되는 인삼의 허브도시이다.

해마다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체험의 진수 인삼캐기체험여행과 건강체험관, 인삼가공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국제인삼교역전을 선보인다. 여기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발맞춰 금산인삼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인다. 축제기간 10일 동안 주무대에서는 건강댄스공연, 금산인삼 창작동요대회, 주부가요제 등 전국형 공연과 함께 금산인삼 힐링 음악회, 뮤지컬 갈라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진다.

1981년부터 매년 개최돼 온 금산인삼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전국 최우수축제 10회 선정의 화려한 경력과 2010년 세계축제협회의 축제도시 선정에 이어 피나루 어워드 10년 수상 등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형 축제로서 명성을 쌓아오고 있다.

충남 부여시 부여서동연꽃축제

우리나라 최초 인공정원... 연꽃의 빛 발하다!

올해 제17회를 맞은 '부여서동연꽃축제'가 7월 한 달 동안 서동공원(궁남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부여서동연꽃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연꽃축제 10만 평 규모의 연꽃 부지에서 백련, 흥련, 황금련, 오가사스연, 빅토리아연 등 5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연꽃들을 구경할 수 있다.

서동공원은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아기와 용(龍)의 신화가 살아 숨

쉬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정원으로 백제의 우수한 조경기술을 엿볼 수 있는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기존 10일 동안 운영하던 축제 기간이 연꽃이 개화하는 기간에 맞춰 7월 한 달 운영으로 변경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7월 5일부터 7일까지는 대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말에는 지역예술인을 중심으로 한 소공연 및 이벤트를 운영한다. 낮에는 다채로운 문화 체험 행사를 즐기고 밤에는 연꽃을 배경으로 한 화려한 야경을 관람할 수 있다.

충남 당진시 버그내연호문화축제

수련 흥련 등 아름다운 40여종 연꽃의 향연

연꽃의 개화시기인 매년 7월에 개최되는 '버그내 연호문화축제'가 올해 3회째를 맞는다.



조선시대 3대 방죽이자 2017년 세계관광지로서 유산으로 등재된 충남 당진의 합덕에는 예부터 연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옛 설화에 따르면 죽어서 저승에 갔을 때 연라대왕이 '합덕제의 연꽃은 보고 죽었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합덕제의 연꽃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명하다.

이 아름다운 연꽃의 모습과 세계관광지로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합덕제의 역사적 배경과 내포 문화권 가톨릭 발원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버그내 연호문화축제'에서는 수련, 흥련, 백련 등 40여 종의 연꽃과 클래식, 타악, 창포꽃 등의 화려하고 다양한 꽃들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수리민속박물관과 농촌테마파크, 버그내 순례길, 솔피성지와 합덕성당 등 풍부한 문화자원이 있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충족 할 수 있다.

충남 홍성군 홍성역사인물축제

만해의 고향서 100년만에 다시 외치는 독립만세

충남 홍성에서 9월 27~28일 '만해 한용운 팬'이라는 주제로 '2019 홍성역사인물축제'가 개최된다.



2019년 문화관광 육성축제로 선정된 홍성역사인물축제는 역사인물 6인을 축제현장에서 즐기면서 알아보는 축제이다. 올해는 3·1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 '만해 한용운' 중심으로 축제가 진행된다.

대표 프로그램인 '홍주성을 지켜라!'는 홍주성 전투를 재현하는 프로

그램으로 1000여 명의 일반인 참여자가 횃불을 들고 홍주성을 지키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창작 뮤지컬 '만해 한용운'과 밴드 공연 '독립을 외치다',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3·1 만세운동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또 아이들은 '그들과 독립만세 외치!'와 '3·1운동 목판 체험', '한용운 시 쓰기' 등을 통해 한용운을 이해할 수 있다. 아간에는 홍주읍성 곳곳을 아름다운 불빛으로 수놓는 '홍주읍성 별빛정원' 프로그램과 '만해로드 맵핑' 등 화려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충남 서천군 장항6080뉴트로여행

6080에는 추억을... 젊은세대에는 신선한 감성을...

뉴트로 콘셉트의 축제인 '장항 6080 뉴트로 여행 만끽'이 충남 서천군 장항읍의 6080 맛나로 골목에서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린다.



6080 맛나로 골목의 문화자원과 음식자원을 활용해 서천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입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의 6080 맛나로 골목의 테마에 올해 트렌드 키워드인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뉴트로 콘셉

트로 꾸며진다. 6080세대에게는 옛 시절의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신선한 감성을 전한다.

축제에서는 6080 맛나로 골목의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이고 뉴트로 콘셉트에 부합하는 다채로운 체험거리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레트로 콘셉트의 '맛나로 가요제', 사진 프로그램인 '추억사진관', 체험 프로그램인 '만끼 문방구'와 '골목놀이터', 공연 프로그램인 '별밤콘서트'와 '만끼 쇼타임' 등이 있다.

부산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K팝 콘서트부터 아이돌과 팬미팅까지 즐긴다

2019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 2019)이 10월 19일부터 7일 동안 열린다.

'K-POP콘서트'는 10월 19일 화명운동장에서 개최되며, 가족형 공연인 '패밀리 파크콘서트', BOF의 다양한 콘텐츠가 놀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간에 구성된 'BOF랜드'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공개 오디션 형식으로 시작되는 국내 다양한 뮤지 레이블 공개 오디션이 7월부터 시작돼 10월 20일 BOF랜드에서 결선이 치러진다. 최종

우승팀은 파크 콘서트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는 최정상 합합 아티스트와 EDM DJ의 컬래버레이션 공연과 케이팝 아이돌그룹 팬미팅, 부산 대표 뮤지션의 라이브 클럽이 펼쳐지며 'Made in Busan' 프로그램과 K-컬처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BOF랜드로 아시아 한류 축제가 열린다.

자세한 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www.b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 기장군
차성문화제

기장군의 '옛 시간' 속으로 빠져들어 볼까

올해로 15회를 맞는 차성문화제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기장중학교와 새마을 어린이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차성문화제의 '차성(車城)'이란 별호는 고려 성종 때 붙여진 이름으로, 1995년 10월 기장군으로 복군되면서 이를 경축하고 기장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처음 개최됐다.

이후 차성문화제는 기장군의 성장과 함께 기장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군민의 화합과 애乡심을 고취하기 위

해 격년제로 열려 기장군 최대의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는 5개 읍면의 길놀이 퍼레이드와 입장 퍼포먼스, 민속문화 복원 등 기장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차성을 주제로 한 송사울창, 시극, 연극 등 주제 공연과 함께 기장예술제가 어우러져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기장 고유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있어 기장의 옛 시간 속으로 빠져드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대구 남구
대구헬러윈축제

안지랑곰창골목-앞산카페거리서 헬러윈 파티

아시아 최대 헬러윈축제를 목표로 올해 2번째를 맞는 대구 헬러윈축제가 10월 25~26일 이틀간 대구 남구 앞산3대맛길(앞산 카페거리, 안지랑곰창골목, 앞산맛들레길)과 대명공원거리 일대에서 개최된다. 안지랑곰창골목과 앞산카페거리를 중심으로 지역상인, 주민, 예술인들이 힘을 합쳐 개최한 지난해 대구 헬러윈축제에는 약 2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다. 대구 헬러윈축제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지역 일부가

공동묘지로 활용되었고, 3개의 미군 대구기지 캠프가 위치하는 역사적, 지역적 특성을 접목한 대구 남구만의 차별화된 헬러윈축제 브랜드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짝-오-랜턴 카빙체험, 페이스페인팅, 트릭 오어 트릿, 헬러윈 커스텀 콘테스트, EDM 파티, 헬러윈 퍼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헬러윈축제 홈페이지(www.dghalloween.modoo.at)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aps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울산마두희축제

300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즐기기 "으라차차"

320년 역사의 전통축제, '울산마두희축제'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울산 중구 원도심 일원에서 진행된다. 단오날을 맞아 병영과 울산부의 사람들이 행하던 놀이에서 유래한 울산 큰줄당기기 '마두희(馬頭戲)'는 "서군이 이기면 풍년이 들고, 동군이 이기면 가정의 화목이 온다" 하여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공동체적 대응놀이의 풍속 중 하나이다. 특히 축제의 핵심인 큰줄당기기는 축제기간 한 달 전부터 새끼줄을 꼬아서 있고 또 이어 총길이 150m, 약 1에 달

하는 무게의 큰 줄을 제작하고 이를 3000여 명이 달하는 울산시민들이 중구 원도심의 시계탑으로 함께 옮긴 뒤 진행된다. 줄과 줄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또 마음과 마음을 이어가며 함께 만들어지는 울산마두희축제는 '함께하면 커지는 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할수록 커지는 행복을 전하고자 큰줄당기기뿐만 아니라 마두희마당, 공연마당, 체험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마두희가 열리는 울산중구는 문화관광체육부가 선정한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마두희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 문화요소가 있으니 꼭 한번 가보자!



경북 안동시
안동국제탈춤축제

탈 만들어 쓰고, 탈춤 따라 추며 알쭉~!

세계적인 안동국제탈춤축제가 24~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7회 한국축제&여행박람회(K-Festival 2019)'에 참가한다.

안동국제탈춤축제는 국내외 탈 전시와 탈 만들기, 탈춤 따라 배우기 체험, 탈놀이단 공연 등 축제 현장을 옮겨 놓은 듯한 부스 운영을 토대로 올해 축제를 홍보할 계획이다.

2019 안동국제탈춤축제는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의 위상답게

매년 참가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안동국제탈춤재단(이사장 권영세)은 양질의 세계탈춤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안동국제탈춤재단은 이번 박람회 참여를 통해 안동국제탈춤축제의 우수성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 국제적인 축제 경쟁력을 갖추고, 관광객 모객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 비즈니스가 가능한 마케팅 장을 펼치는 등 글로벌 육성축제로서 우리나라 축제문화를 선도할 예정이다.



경남 통영시
통영한산대첩축제

이순신 장군 되새기며... 승리의 '한산대첩' 재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혼이 남아있는 남해안의 여러 지역 중에서 으뜸인 곳이 바로 경남 통영이다.

왜군 주력부대를 맞아 한산도 앞 바다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제58회 통영한산대첩축제가 8월 10~14일 5일 동안 통영시 도남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전국 최대의 해상위터파크를 조성해 여름휴가철 최고의 축제를 준비한다.

이번 축제는 300여 년 전부터 시행되던 군점 및 서막식과 함께 버블 코스프레 거리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인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배 120여 척이 참여해 학익진을 펼쳐 승리한 '한산대첩 재현'과 '공중한산해전', 그리고 매일 펼쳐지는 다양한 한산해전을 체험 놀이 프로그램으로 만날 수 있다.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바다에서 펼쳐질 통영한산대첩축제를 통해 위대한 이순신 장군의 승리의 감동을 함께 느껴보고 뜨거운 애국 혼을 되새겨 보자.



부산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산바다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

록 즐기고, 영화보고... 365일 즐거운 부산

부산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 축제의 도시다. 올해 20회를 맞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7월 27~28일 이틀간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린다.

국내 최장수 록페스티벌로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인디밴드들과 해외 밴드들이 참가해 역동적인 축제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시내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해수욕장을 찾을 수 있는 바다의 도시답게 8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제24회 부산바다축제가 진행된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의전당에서 10월 3~12일 개최된다. 동시대 거장 감독들의 신작 및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화제작을 상영하는 '갈라 프레젠테이션', 아시아 영화 두 편의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뉴커런츠 시상식' 등이 준비된다.

제15회 부산불꽃축제가 11월 2일 광안리해수욕장의 밤하늘과 바다를 화려하게 수놓는다. '멀티미디어 해상쇼'라는 취지대로 국내 최대의 다양한 불꽃뿐만 아니라 화려한 레저 쇼 등이 테마에 맞는 음악과 함께 선보인다.



대구시
대구치맥페스티벌

7월, 치킨 먹고 맥주 마시러 대구로 가자!

2019 대구 치맥페스티벌이 7월 17~21일 5일간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치킨산업의 분향이라 불리는 대구는 6·25전쟁 이후 계속산업의 분거지로 자리매김했다.

모두가 알 만한 치킨 빅브랜드(교촌치킨, 땅땅치킨, 멕시카나, 처갓집,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등)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진 대구는 탄탄한 기반의 치킨산

업과 무더운 날씨라는 환경적 요소를 결합해 매년 7월 '대구 치맥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2013년 첫 축제를 시작으로 불과 4년 만에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구의 대표 여름축제로 성장했다.

올해 대구 치맥페스티벌은 치킨과 맥주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관람, 이벤트 프로그램, EDM 파티 등 핫한 도시 대구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궈줄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대구 달성군
사문진비어페스티벌

뜨거운 여름, 맥주와 음악으로 더위를 날리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맥주와 함께 내로라하는 뮤지션들의 공연을 감상하는 축제가 울여름 찾아온다.

사문진 비어(BEER) 페스티벌이 8월 마지막 주말 대구 달성군의 랜드마크인 사문진 야외상설공연장 일원에서 올해 처음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전국의 수제맥주와 세계 맥주 등 수십 개사가 참가해 다양하고 개성 있는 맥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푸드트럭에서는 다양한 맥

거리뿐만 아니라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참관객은 세계 맥주의 역사와 맥주의 재료, 스타일 등을 공유하고 개인의 취향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맥주 시음행사를 체험할 수 있다. 더불어 초청 가수들의 공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돼 행사의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8월 마지막 주말, 사문진 강변에 울려 퍼지는 음악과 함께 뜨거운 무더위를 식혀줄 강바람을 맞으며 맥주 한잔을 즐겨보자.



울산시
울산고래축제

바다, 사람, 그리고 고래... 생태의 소중함 되새긴다

울산은 수천 년 전 선사인들이 바위에 고래를 새겨놓은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와 근대 포경산업의 중심지였던 장생포의 역사가 어우러진 우리나라 대표 고래도시다.

올해 25회째를 맞이하는 '2019년 울산고래축제'는 문화관광부 육성축제로 선정되었고 6월 7~9일 3일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개최된다.

울산고래축제는 '고래의 꿈! 바다의 꿈! 울산의 꿈!'이라는 슬로건으로 바다와 사람 그리고 생태의 소

중함을 알린다.

이달 3일 태화강에 고래를 사랑하자는 취지로 만든 대형 조형물 '러브웨일(LoveWhale)'을 띄우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울산고래축제는 개막식 및 폐막식(주제공연, 축하공연) 고래칠리댄, 장생포뮤지컬페스티벌, 고래학교, 장생포예술로(거리예술공연), 장생포차(포장마차), 장생포1985(1980년대 재연), 크리에이티브스튜디오 등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경남 김해시
김해분청도자기축제

흙 밟고, 도예명장들 작품 만나며 오감만족

'제24회 김해분청도자기축제'가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흘간 김해분청도자박물관 및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해분청도자기축제에는 경남 김해지역 90여 개 도예업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도예명장들이 빚어내는 우수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시민들의 오감을 충족하는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전시행사로 백파선 전시관, 대한

민국분청도자대전 입상작전, 김해 도자 테이블웨어전 등이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과 김해분청도자박물관에서 열린다. 손도장 찍기 체험, 흙 밟기 체험, 대형 도자기 시연 등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10여 종의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돼 있다.

2019 정부지정 문화관광 육성축제로 선정된 김해분청도자기축제는 더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지정 문화관광 축제'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
거제섬꽃축제

형형색색 가을꽃으로 가득... 바다를 꽃 피우다

올해 14회를 맞는 '거제섬꽃축제'는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평화의 섬, 꽃의 바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거제섬꽃축제는 지역 시민들과 농업인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 대표 수제(手製)축제다.

10만 송이의 가을꽃으로 만들어진 꽃 조형물이 바다를 이루는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형형색색 가을꽃이 가득한 농심테마파크, 향긋한 허브

향으로 관람객들의 피로를 날려줄 힐링허브랜드, 300여 종의 세계동백나무를 전시한 세계동백원 등으로 축제장이 조성된다.

국화분재·수석·사진·한국화·현대미술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전시장은 거제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거제섬꽃축제에는 매년 20만 명이 방문한다. 2010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상남도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한국관광공사 선정
 2019-2020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100 Must-Visit Tourist Spots of Korea

꽃, 바람, 숲, 비와 함께하는 국민힐러


봄 타러 오세요~

하이원의 봄은 시나브로 찾아옵니다.



하이원에서 봄 타기!!!

- | | |
|--|--|
|  카트 타고 꽃 향기 맡기~ - 야생화 트레킹 & 카트투어 |  파도 타고 물놀이 하기~ - 하이원 워터월드 (실외 개장) |
|  코스터 타고 청정 바람 맞기~ - 알파인 코스터 |  뒷바람 타고 나이스 샷~ - 하이원 CC |
|  곤돌라 타고 숲 내음 맞기~ - 스카이1340(관광곤돌라), 하늘길 숲 체험 |  롤러 타고 추억 만들기~ - 하이원 롤러장 |
|  아빠 무등 타고 빛 체험 하기~ 불꽃쇼, 라이팅갤러리, 라이팅 꽃길 | |



경남 양산시
양산삼량문화축전

양산의 과거 '삼량 시대'를 되돌아보다

충절의 도시 경남 양산에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양산천 둔치와 양산종합운동장 일원에서 '2019 양산삼량문화축전'이 성대하게 개최된다.

삼량이란 1500여 년 전 신라 눌지왕 2년(서기 418년)부터 경덕왕 16년(서기 757년)까지 340여 년간 불려온 양산의 옛 이름이다. 당시 삼량주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에워싼 경남북의 중동부 지역을 관장했다.

삼량의 뜻은 지극한 충성을 의

미한다. 양산삼량문화축전의 모체는 삼량주간 박제상 공이 보여준 충효정신이 근본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시민들의 화합과 지역사회의 풍요를 기원하는 대규모 축제 한마당이 됐다.

양산삼량문화축전은 삼량문화축제 서제를 시작으로 개막식 등 공식 프로그램과 삼량시대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삼량문화체험존, 김서현 장군 전국 무과대전, 삼량 테마 퍼포먼스 등을 준비해 축전의 주제의식을 부각한다.



경남 함양군
함양산삼축제

지리산 자락 함양, 산삼꽃을 피우다

제16회를 맞이한 '이팔청춘' 함양산삼축제가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천연기념물 제154호 천년의 숲 '상림'에서 열린다.

함양군은 고려산삼의 가치와 위상을 재검정하고 잊혀져가는 산삼과 심마니의 역사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2004년부터 함양산삼축제를 개최해 왔다.

'산양삼 캐기체험', '황금산삼을 찾아라', '삼뽕! 소리지르기' 등 산삼

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함양에서는 전설의 영약인 산양삼뿐만 아니라 산약초, 산양삼 가공식품, 농특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보다 싼 가격에 산삼을 얻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산삼경매도 진행돼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특히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2020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성공개최 기념을 위한 산삼막거리페스티벌과 엑스포 D-365일 행사, 힐링락콘서트 등 특별이벤트도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 맥주축제

맥주와 소시지 먹으며... 남해서 독일을 만나다

대한민국에서 독일을 만날 수 있는 곳. 남해 독일마을에서 제9회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1960, 70년대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던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여생을 고국에서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남해군에서 2000년~2006년 동안 독일교포 정착촌인 독일마을을 조성해 지금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국적인 마을풍광과 쪽빛 남해바다의 풍광 속에서 펼쳐지는 독일마을맥주축제는 첫날 환영 거리퍼레이드와 맥주 오크통 개봉을 시작으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프로스트(건배의 독일어)를 외치며 축제장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맥주잔을 부딪치며 인사를 주고받는 축제분위기가 연출된다.

독일 맥주와 소시지를 비롯한 민속공연, 문화, 음식 등 이색적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저녁이 되면 화려한 공연과 불꽃놀이로 축제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한다.



전라북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023년 전북서, 전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펼친다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2023년 전 세계 청소년들의 대축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개최된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국제행사로서 169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1000만 m²(약 300만 평)에 이르는 드넓은 야영장에서 2023년 8월, 12일간 야영하며 새만금 잼버리

장에서의 영내 프로그램과 가장 한국적인 곳, 전북 14개 시군에서 펼쳐지는 영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한류의 중심 전북을 느끼게 될 것이다.

'Draw Your Dream!(네 꿈을 펼쳐라!)'를 주제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는 첨단 4차 산업 체험 프로그램,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환경·평화포럼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전북 정읍시
정읍구절초꽃축제

구절초 물에 족욕하고, 꽃길 따라 걸으며 힐링

섬진강의 본류인 추령천이 하회(河回) 형상으로 휘감아 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다. 전북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이다. 이곳에 30만m²의 구절초 꽃경관이 소나무 아래 펼쳐진다. 매년 10월 초순이면 전국의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이 이 풍경을 보기 위해 몰려든다. 구절초는 음력 9월 9일 즈음에 가장 원기가 충만한 꽃이다. 민간요법으로 약재와 음식 등에 두루 사용되었다. 쓰임새만큼이나 수려한 꽃의 분위기도

최고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정읍구절초꽃축제'는 10월 5일부터 20까지 16일간 진행된다. 숲속 구절초 옆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꽃길', 꽃길 따라 걷는 '구절초 꽃길 트레킹', '드레스 포토존과 함께', '구절초 족욕체험', '구절초 강등열차' 등 구절초로 특화된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정읍 구절초 꽃축제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10월의 대표축제 5선(選)' 중의 하나이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고 싶다면 정읍의 구절초를 찾아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전북 고창군
고창모양성제

1000명이 전통 한복 입고 답성놀이-강강술래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 축제로 4년 연속 선정된 '고창모양성제'가 올해 46회를 맞아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전북 고창읍성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고창모양성제는 고창읍성의 축성 정신을 계승하고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하기 위해 열리는 역사 깊은 축제다. 역사와 전통, 현대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선조들의 유비무환의 협동정신을 엿볼 수 있고 지역 농특산물과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가득하다. 고창모양성제는 큰 볼거리 중 하나

인 '한반도 첫 수도 고창' 거리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고창읍성 축성에 참여했던 전라북도도와 제주도 등 17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축성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특히 답성놀이와 강강술래 재연은 1000여 명의 부녀자들이 전통 한복을 입고 참여해 아름다운 장관을 보여준다.

축제기간에는 조선시대 병영문화 재연과 체험, 모양성 전투게임, 모양성 쌓기, 추억의 옛 놀이(떡지, 팽이, 치기놀이등)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고창갯벌에서 생산되는 바지락 등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체험도 할 수 있다.



경남 하동군
알프스하동
섬진강문화 재첩축제

황금재첩 찾으러 알프스 하동으로 오세요

2019 정부지정 육성축제에 오른 제5회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 재첩축제가 7월 26~28일 3일간 백사청송(白沙靑松)의 하동송림과 섬진강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알프스하동 섬진강! 황금재첩을 찾아라!'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축제는 재첩·공연·수상·모래·연관행사 등 35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표 프로그램인 '황금(은) 재첩을 찾아라'가 첫날 오후와 둘째·셋째 날 오전·오후 총 다섯 차례 펼쳐져 순금·은 1돈짜리 황금(은)재첩의 주인공

을 만난다. 청소년·피서객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섬진강 과학·생태교실, 무동력 행글라이더 '섬진강을 날아라', 젓가락으로 재첩 빨리 옮기기, 도전! 재첩 무게를 맞혀라 등 체험거리도 다채롭게 준비된다.

공연·전시프로그램으로 초청 가수의 개막 축하 쇼, 하동청년회의소와 함께하는 치맥페스티벌, 찾아가는 문화공연 '창작 타악', 하동연예인협회의 제8회 하동 정두수 전국가요제,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하동송림과 섬진강 사진전이 마련된다.



경남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동의보감 숨결따라, 산청약초 향기따라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어 주는 힐링 축제인 제19회 산청한방약초축제가 9월 27일부터 10월 9일까지 13일 동안 경남 산청군 산청나들목 입구 축제광장과 동의보감촌에서 열린다.

산청군은 허준 선생과 동의보감의 역사성, 1000여 종의 약초가 자생하는 청정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통한방과 산청약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

를 지역산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산청한방약초축제를 개최해 왔다.

산청한방약초축제에서는 산청해민서, 동의보감관, 내몸의 보약체험, 한방향노화 웰니스 체험을 비롯해 족욕체험, 한방향노화 약초체험, 한방향노화 약초관 등 한방약초 관련 체험과 약초를 이용한 다양한 약선음식을 접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산양삼, 백작약, 하수오 등 200여 종의 약초를 직접 보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터도 마련하고 있다.



제주시
제주들불축제

한해 굿은 액 다 태워버리고 큰 복받아 가세요

1997년 북제주군에서 시작된 제주들불축제는 2012년 15회까지 정월대보름 들불의 민속학적 의미와 제주의 목축문화를 접합해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라는 명칭으로 축제를 개최해오다 2013년부터는 축제명을 '제주들불축제'로 개명했다.

올해 제주들불축제는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해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로 진행됐다. 프로그램 전국공모를 통해 선정된

'LIVE 들불', '소원 북 울리기' 등 5개 프로그램과 '새별오름 스탬프 랠리' '내 소원문구 레이지쇼' 등 10개 신규 프로그램 등 총 36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축제 마스코트 '부리부리' 조형물 포토존 설치로 시민들에게 또 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또 축제장 진입로에 축제 스토리텔링 이야기 길을 조성해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제주들불축제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2020년 제주들불축제는 3월초에 새별오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라남도
명량대첩축제

해군함정 탑승체험... 명량대첩 '그때'를 보고 느끼다

전라남도는 명량대첩을 이끈 이순신 장군과 전라도민들의 희생·호국정신을 선양하고자 매년 울돌목 일원에서 명량대첩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9월 27~29일 3일간 열릴 예정이다.

명량대첩축제는 전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서 박진감 넘치는 해전재현과 출정식, 해상퍼레이드, 만가행렬, 평화의 헌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불

거리 뿐 아니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해군함정 탑승체험과 가족이 함께하는 조선수군학교, 조선수군 무예연무대회 및 무예 버스킹, 명량캠핑존 등 체험을 통해 명량대첩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축제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축제장 내에는 깃발 등을 활용해 수군진지를 구성, 전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조선시대 의상과 수군복 체험, 해군과 협업을 통한 체험 및 전시 홍보부스 운영한다.



전북 김제시
김제지평선축제

아궁이 쌀밥짓기 등 가족과 함께 전통농경문화 체험

올해 21회를 맞는 '2019 김제지평선축제'가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한국 농경문화의 중심지 벽골제와 전북 김제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건강한 축제! 신나는 축제! 김제지평선축제'를 슬로건으로 5개 분야 60여 개의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글로벌 콘텐츠 강화를 통해 한국 축제의 글로벌화 표준

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제지평선축제에서는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쌍룡기원 입석 줄다리기 △쌍룡 햇불 퍼레이드로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전통 농경문화를 체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 △모락모락 아궁이 쌀밥짓기 등으로 체험왕국의 진면모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평선 가을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공연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확정돼 지평선축제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북 무주군
무주반딧불축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반디가 노니는 세상

무주반딧불축제가 24~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제7회 한국축제&여행박람회(K-Festival 2019)'에 참가한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천연기념물 제322호 '반딧불이와 그 맥이서식지'를 테마로 한 생태자연환경 축제다. 무주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대지'의 특성을 기반으로 열리는 축제는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됐다. 1997년 '자연의 나라 무주'라는

주제로 첫선을 보인 이래로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로서의 명예를 지켜왔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축제 콘텐츠대상',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등 환경·체험·소득축제로서 그 차별성과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문화관광 대표축제의 위상과 내실을 갖추는 한편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인기 프로그램인 '신비탐사'와 같은 생태자연환경 관련 주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도 집중하고 있다.



전북 순창군
순창장류축제

2019인분 고추장 떡볶이 파티 열린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순창장류축제'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북 순창군 고추장 민속마을 일원에서 진행된다.

전통의 아름다움과 명맥을 잇는 '장류'라는 테마 속에 역동적인 '홍'을 가미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세대공감형 축제이다. 우리의 장(醬)을 소재로 다양한 공연, 전시, 경연 및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올해 순창장류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2019인분 고추장 떡볶

이 파티,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장류주먹밥 모자이크 등이다.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고추장소스 숯불구이 체험존 등 대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현재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먹방 콘텐츠와 연계성을 강화해 장류축제의 대표 콘텐츠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장류축제에 걸맞게 순창을 대표하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들을 준비해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채로운 체험 및 공연으로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북 임실군
임실N치즈축제

국화꽃 향기 맡으며 왕치즈 피자 만들어볼까

한국 치즈의 발상지인 전북 임실에서 국내 하 나쁜인 치즈축제 '임실N치즈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19 임실N치즈축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에서 열린다.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꽃 1000만 송이로 수놓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초원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을 설레게 한다.

국가대표 왕치즈피자 만들기,

우유드림 행복드림 페어이드, 임실N치즈페어 등 치즈를 테마로 한 80여 개의 흥겨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텀으로 할인받는 임실N치즈 등 온갖 즐길거리와 먹거리, 볼거리로 가득한 임실N치즈축제에서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치즈요리를 맛보고 국화꽃 향기 가득한 축제장에서 신나게 놀며, 크게 웃어보면 어떨까.

2019 임실N치즈축제 내용 및 프로그램 참여는 임실N치즈축제 홈페이지www.imsilfestival.com, 063-643-39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 순천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유명 셰프와 함께하는 '맛과 건강'의 축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남 순천시 중앙로 일원에서 제4회 '2019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 열린다.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에서는 순천의 대표 맛집, 아트마켓 전시, 해외팀 공연, 버스킹, 거리공연 등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올해는 유명셰프 및 음식칼

럼니스트를 초청해 바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단순한 맛 위주 축제에서 벗어나 '맛과 건강'을 추구하는 축제로 진행된다.

또한 순천시 홍보대사인 노라조의 공연도 마련될 예정이며, 행사 마지막 날에는 EDM DJ파티의 신나는 무대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장이 마련된다.

시 승격 70주년을 맞은 순천시는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순천시 주요 관광지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
강진청자축제

20여종 청자체험... 색 다른 매력에 빠져보세요

올가을에는 강진에서 색(色)다른 청자의 매력이 빠져보자.

47회째를 맞는 올해 강진청자축제는 어린이 복합놀이 공간을 조성해 어린이가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물레성형체험, 청자조각하기, 청자코일링체험, 청자 소망그림 채색체험 등 20여 종의 청자체험은 어린 관광객들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객들의 오감을 자극한다. 물레성형체험은 전통물레를

이용해 성형을 직접 해보고 완성품을 가져가는 체험으로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또한 축제 기간 중 진행되는 강진청자 할인 판매를 통해 명품 강진청자를 평소의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강진관요와 민간요에서 생산된 다양한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청자를 구입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 행사도 진행된다. '맛의1번지' 강진답게 향토음식관에서는 다양한 남도음식을 마음껏 맛볼 수 있다.



전남 영광군
영광법성포단오제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6월엔 법성포 단오제, 9월엔 불갑사 축제 오세요

영광군이 군을 대표하는 2개 축제의 개최일정을 밝혀 관광객들의 이목을 끈다.

2019 '영광법성포단오제'는 6월 7~10일 4일간 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 일원에서 열린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국내 최고(最古) 단오절 행사로 약 500년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서남해안권 유일의 전통 민속축제이다. 전통 제전행사와 더불어 해를 거듭할수록 단오제퍼레이드·단심줄놀이·가족

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체험존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제19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9월 18~24일 7일간 천년고찰 불갑사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상사화 군락지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가을 꽃 축제로 매년 30만~40만 명이 찾는다.

올해는 규모가 대폭 확대돼 야간퍼레이드와 구석구석 발길을 멈추게 하는 테마존 등으로 축제장을 알차게 채워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계획이다.



전남 장흥군
정남진장흥물축제

지상최대 물싸움 축제... 장흥에 흠뻑 빠지다

'제12회 정남진장흥물축제'가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 전남 장흥군 장흥읍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펼쳐진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물축제로 꼽힌다. 올해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의 물축제로 도약을 꿈꾸며 여름의 무더위를 날려줄 더욱더 강력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물싸움 교전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리퍼레이드 살수대첨부터 지상최대의 물싸움, 황금 물고기를 잡아

라, 장흥 워터樂 풀파티와 새로 도입한 장흥 워터 그라운드 그리고 다양한 육상·수상 이벤트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편백떡밥, 파라솔, 선 베드 등 해변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인스타 감성 공간인 장흥 '플라주'를 업그레이드한다.

올해는 특히 장흥물축제를 대표하는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 기획한 장흥 워터 그라운드를 주목해 보자. 이색적인 슬라이드인 SLIP&FIY와 아쿠아 미니게임존, 휴게공간, 포토존 등 관광객들에게 이채로운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전북 완주군
완주와일드푸드축제

맨손으로 물고기 잡아 화덕구이... '야생의 맛' 체험

제9회 완주와일드푸드축제가 9월 27~29일 3일간 전북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5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돼 올해 9번째를 맞는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이름에 걸맞은 와일드한 음식과 와일드한 체험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와일드한 체험은 천렵 체험이다.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아보는 체험으로 잡은 물고기는 손질해서 그 자리에서 화덕에 구워

먹을 수 있다. 그야말로 수렵하던 시절의 야생의 맛을 볼 수 있는 가장 핫한 체험이다.

또한 축제장에서만 맛 볼 수 있는 이색 음식도 있다. 개구리, 메뚜기, 돼지코, 꿀벌, 달팽이 등 이색적인 먹거리를 활용한 와일드푸드가 그것.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꼭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한다.

이외에도 음식 축제답게 완주군의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옛 방식의 요리들을 볼 수 있다. 오랜 시간 돌을 달구 음식을 익히는 감자삼국 이 대표적이며,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들을 맛 볼 수 있어 향수를 자극한다.



전북 장수군
한우량사과랑축제

사과수확-한우마당...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다

무더운 여름에서 하늘이 푸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로 넘어갈 무렵, 빨갭게 익어가는 사과의 고장 전북 장수에서 빨간색으로 물든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장수의 영양을 가득 담은 홍로 사과와 오미자, 명품한우 등 대한민국 최초 레드컬러(Red Color) 농·특산물을 테마로 수확의 기쁨과 다양한 농촌생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장수한우량사과랑축제'가 올해

로 13회를 맞아 9월 6일부터 8일까지 장수군 임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장수한우량 사과랑 축제'를 슬로건으로 사과수확 체험, 장수 한우마당, 적과의 동침, 전국 한우콘포 나르기 체험 등 7개 분야 70여 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토마토 요리 경연대회, 어린이 마당극, 레드컬러링 체험, 사과볼링 체험 등 아이들을 위한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해 가족단위 구성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 목포시
목포항구축제

싱싱한 해산물, 경매로 저렴하게 맛볼 기회

목포항구축제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낭만항구에서! 신명나는 파시 한 판'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파시'는 과거 바다 위에서 열렸던 생선시장으로 다도해의 모험이자 청정해역인 서남해안 수산물의 집산지인 목포항에서도 열렸다.

항구축제의 킬러콘텐츠로 활용해 온 파시를 올해는 더욱 새롭고 다채롭게 진행한다. 특히 항구축제 최초로 싱싱한 활어를 경매하고, 경매로

구입한 생선을 파시 수랏간의 회터와 구이터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상에 정박된 전통한선에서는 참조기와 먹걸치 등 저절 수산물을 경매하는 '선상 파시경매'가 열린다. 파시무대에서는 청년어부들이 매일 '어쌔그랜드세일'을 통해 싱싱한 생선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 밖에도 수협과 수산식품지원센터가 김장에 사용하는 추젓을 판매하는 등 파시는 수산물로 만끽할 수 있는 재미를 풍성하게 선사한다.



전남 영암군
월출산 국화축제

월출산서 펼쳐지는 '五色국화' 향연

2019 월출산 국화축제가 10월 말일부터 11월 중순까지 명품 피서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에서 열린다.

'가을여행! 국화향기 가득한 영암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화작품 전시, 기찬랜드 풍광에 어울리는 다양한 국화조형물 및 테마포토존 배치, 전시공간 확대 배치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추가 제공,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맞춤형 문화·체험행사 확충, 농특산물 판매점 및 먹거리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시행사, 문화행사, 경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판매행사로 나뉘어 다채롭게 구성된다.

주차장 내 체험존 주변에는 꽃벽과 꽃볼 조형물이 설치되고 가야금산조 기념관 입구와 정원에는 지난해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김창조 선생 흉상과 왕인박사상이 전시된다. 아름다운 월출산 정경 및 영암국화연구회의 수준 높은 분재작품들도 배치된다.



전남 신안군
섬·갯벌올림픽

섬부터 공놀이까지... '갯벌 올림픽'을 즐기자

전남 신안군이 8월 8일 섬의 날(국가 지정 기념일)을 기념해 섬이 가진 무한한 자원을 널리 알리는 축제를 연다.

갯벌 썰매타기 대회, 갯벌에서 공놀이 등 다양한 대회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갯벌 올림픽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색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우전해변을 따라 팔장과 해상 숲이 있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아간 프로그램과 주말 공연 등 기

존 증도에서 볼 수 없었던 프로그램들도 대거 중이다.

증도는 신안군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염전, 염생식물원, 화도 노두길, 소금박물관, 짱뚥어다리 등 다양한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상시 증도를 즐길 수 있는 스탬프 투어(호핑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무안공항이 가깝고 광주에서 1시간, 목포에서 1시간 거리다. 올 여름엔 방학, 휴가에는 차 타고(연륙교) 신안으로 섬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전남 해남군
땅끝송호해변축제

해변서 감성 자극... 노을 보며 즐기는 야간음악회

전남 해남에 있는 포레스트수목원은 건국대에서 식물학을 전공한 산이면 외송마을 출신 김진영 원장과 아내 이경애 씨가 조성한 곳으로, 6만여평 규모에 1400여 종의 식물이 식재돼 있다.

포레스트수목원은 숲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포레스트(forest)에 별(Star), 기암괴석(Stone), 이야기(Story), 배울 거리(Study)라는 4개의 St를 즐길 수 있는 수목원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1년 내내 볼거리를 제공하는 수목원이 되고자 계절별로 중심이 되는 식물을 식재했다.

봄에는 팥꽃나무와 꽃잔디 등 분홍꽃을 활용한 '분홍꽃축제', 여름에는 시원한 색의 수국이 한아름 피어나는 '땅끝수국축제', 가을에는 풍성한 팜파스글라스를 볼 수 있는 '팜파스축제', 겨울에는 산지락 그늘을 활용해 거대한 얼음벽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땅끝송호해변축제에서 다양한 체험행사와 야간음악회를 열어 선적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음악과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